

한글중심의 한글 로마자삼기

신 경 구

영어 영문학과, 전남대학교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우편번호 700-757)

요 약

이 논문은 한글 로마자 삼기의 여러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외국인용 중심으로 정확한 음성표기를 이루려 했던 현재의 문교부 표기법의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의식을 기준으로 하고 한글과 로마자의 일대일 대응을 바탕으로 한 로마자 삼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1*}

1.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개관

우리나라를 Core'e 또는 Korea로 부른 것으로 보아 우리말의 로마자 삼기의 시작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Core'a 대신에 Korea라는 로마자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말 로마자 표기의 중심이 서양 사람의 언어의식이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한글의 'ㄱ, ㄷ, ㅂ'을 로마자의 'k, t, p'에 대응시킨점이다. 그 뒤 오늘날까지 우리말 로마자삼기에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맥퀸-라이샤워 방법을 들수 있다. 이 방법은 철저하게 유럽과 아메리카의 외국인용 중심으로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었는데, 예일식에서 그 정신이 확인되었고, 현재의 문교부 표준안으로 정부 지정 공식 상품이 되었다.

1882년에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로마자삼기 시도한 사람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존 로스(John Ross)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우리말의 'ㄱ, ㄷ, ㅂ'을 로마자의 'g, d, b'에 대응시킨 점이다. 이 안은 조선어학회안(1940년)에서 빛을 보았다가 문교부 1안(1948)과 2안(1955)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나, 로마자삼기가 외국인용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로 미국에서 학위를 한 영향력있는 학자들로부터 로마자의 유성과 무성의 차이들 무시했다고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 폐기되었고, 현재는 문교부안이 정보처리 부호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부 연구기관이나 낱말처리 프로그램(예. 아래아한글)에서나 쓰이고 있을 따름이다. 공식적으로는 한글학회 안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문교부 1안과 현재의 문교부 3안을 비교하여 보면, 로마자삼기를 보는 두 시각의 차이를 쉽게 알아 볼수 있다.

가. 문교부 1안(1948)

1. 한글의 표기법을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다.(음소 표기)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3. 1음소 1기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음에는 쌍기호를 허락한다.

나. 문교부3안(1984)

1. 소리는 대로 적는다. (음성표기)
2. 'ㄱ, ㅌ'의 표기에 반달표를 쓰되, 생략할 수 있다.
3. 무성음의 거센 소리에는 'h'대신 어깨점을 쓴다.

로마자삼기안의 종류가 모두 60개가 넘는데, 논란이 적은 것은 빼고, 표 1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제안이 나름대로의 논리에 근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한 음소에 대해 수많은 표기법을 만들어내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제안들이 언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언어학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이들이 써야 할 도구라는 데에 있다. 말로만라도 보통사람의 시대인데 보통사람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전문가에게만 통하는 논리로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은 로마자의 대응부호가 없는 경우 말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쓰기도 쉬운 체제를 제안하는

^{1*} 이 글은 어학연구 25-3(서울대 어학연구소, 1989.9)에 발표되었던 것을 줄이고 다듬은 것으로, 효과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지난번 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글과 로마자의 일대일 대응을 주장하였다.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 로마자 삼기의 몇몇 사례

홀소리	문48	문84	기타
ㅏ	eo	ö	ü aw e eo eu o ö" ö ü
ㅓ	u	u	oo ou wu
ㅡ	eu	ü'	eu u ü
ㅣ	ae	ae	a" ai e'
ㅣ	e	e	e' eh ei ey

닿소리	문48	문84	기타
ㄱ	g	k/g	gh/g/k
ㄲ	gg	kk	g k kg kk kq
ㅋ	k	k'	kh
ㅈ	j	ch/j	cč c/j ch ds dz jh/jtj ts tsh
ㅊ	jj	tch	cc djj jj tj tc tch tsh
ㅌ	ch	ch'	c cc ch ch' cq cz tch tsh
ㅍ	s	s/sh	
ㅑ	ss	ss	s
ㄹ	r	r/l	

* 문교부84안의 유성음 표기는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서만 쓰임.

2. 벗어나야 할 편견 몇가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한 결과가 우리의 감각에 맞지 않게 된 이유는 로마자로 바꾸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이 잘못된 데에 있다. 우리는 먼저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편견을 살펴 볼 것이다.

2.1. 영어알파벳이 표기의 기준이라는 생각

영어의 철자법은 한자와 히브리글자 및 아랍글자 다음으로 입관성없는 철자법에 속할 것이다. 철자법의 비밀관성은 한 음소에 여러 가지의 부호가 쓰이는 경우와, 같은 부호가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의 철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비밀관성을 다 지니고 있다. 아래 (1)에서 볼 수 있듯이 홀소리 /i/ 하나만을 위하여 열다섯개 이상의 부호가 쓰이며, 철자 하나가 다섯가지 이상으로 읽히기도 한다.

- (1) 한 음소가 여러 가지 부호를 가진 예 /i/:
/i/: a, e, i, o, u, ai, ae, ea, ay, y, ee, ei, ey, ie, oe, eo
- (2) 한 글자가 여러가지 음소를 나타내는 경우의 예
'o': lowl, /ul, /il, /al, /il/
pope, woman, women, bottom tomorrow

로마자자의 비밀관성은 영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예 (3)에서 보듯이 나라마다 로마자를 읽는 방법이 달라 로마자 읽기의 비밀관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글을 로마자로 삼는 일이 그 만큼 더 복잡해 지고,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 미국인과 영국인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두어, 로마자 표기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 혼란의 주범은 철자법에 입관성이 떨어진 영어이고, 공범은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언어학자들과 행정담당자들이다.

- (3) ㄱ. 로마자 표기: Paris Choi Guillaume
ㄴ. 우리발음: 빠리 최 귀라오매
ㄷ. 영어발음: 페리스 초이 귀름
ㄹ. 불어발음: 빠리 쉬아 귀름

2.2. 정확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생각

로마자 삼기에서 가장 큰 편견의 하나는 한 나라말의 발음을 다른 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쓰기에 불편하거나 입관성이 없는 표기법을 낳게 된다. 두 언어의 표기에 있어서 정확한 일대일 대응에 의한 정확한 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두 언어가 음소의 집합이 같아야 한다. 아울러 두 언어의 음소에 딸린 가지음소의 집합도 같아야 한다.

둘째, 두 언어의 음절구성이 같아야 한다.

셋째, 두 언어의 음성변화 규칙이 같아야 한다.

다음 (4)는 두 언어의 음소 집합이 같지 않아 소리의 정확한 표기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4) ㄱ. 우리말에 없는 영어 닿소리 13개:
f, v, θ, ð, z, ʒ, ʒ, l, b, d, g, ʎ, r
영어로 없는 우리말 닿소리 11개:
ㅂ, ㄷ, ㄱ,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ㄴ. 영어에 없는 우리말 홀소리: ㅡ, ㅣ
우리말에 없는 영어 홀소리: i/ɪ, e/ɛ, u/ʊ, o/ɔ의 구별

나라말마다 서로 다른 음절구성 원칙을 갖고 있다. 똑같은 음소의 집합을 가진 두나라말이 있다고 하여도 음절구성의 원칙이 다르면 같은 글자의 발음이 아래의 (5)와 같이 달라진다.

- (5) ㄱ. 표기: nat strike
ㄴ. 우리말: 낱 스크라이크
ㄷ. 영어: naet straik

2. 프랑스말: na suturaike

음운규칙 역시 나라말마다 다르며 다른 규칙은 똑 같

은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진 낱말을 다르게 발음되게 한다. 우리 말을 로마자로 삼음에 있어서 어떤 표기 방법을 택하든지, 읽는 이들은 아래의 (6)에서처럼 자기 모국어의 독특한 음절 구성 규칙과 음운 규칙에 따라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를 읽게 될 것이다.

(6) ㄱ. 표기:	natmal	nanmal	baegmyong
ㄴ. 우리말:	낱말	난말	백명
ㄷ. 영어:	natmal	nanmal	백명
ㄹ. 불어:	나말르	낭말	배명

현재 문교부3안의 음성 표기는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글의 철자법을 무시한 것이다. 철자법에 대한 문제는 훈민정음을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다.[2] 로마자 표기에서의 문제는 형태소적인 표기와 음소적인 표기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을 어떻게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의 문제이다. 그런데 문교부 3안(1984)은 주시경이래 현재 우리글의 표기법의 원칙이 된 형태소 표기법을 버렸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서 음소 표기도 아닌 음성 표기를 하고 있다. 즉 현재 문교부의 표기법은 모범을 어기고 만들어진 표기법으로서, 이는 꼭 헌법을 어긴 하위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시대적 현실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음성 표기의 목적은 소리나는 대로 적음으로써 정확한 발음을 글자가 제대로 반영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결과가 꼭 정확한 발음을 글자가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표기를 외국인인 읽을 때, 그는 다시 자기들 언어의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우리말 로마자 표기를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외국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는 주장

로마자삼기의 결과를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빈도도 보아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로마자로 된 우리 낱말을 사용하는 빈도는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등하거나 우리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이를 다루는 이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다른 나라에 내다 파는 물건에 써진 생산지 이름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도 보고 남의 나라 사람도 같이 보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덜 보는 것은 아니다. 설령 외국사람만 본다고 하여도 우리말에는 유무성

(voicing)의 변별성(distinct-iveness)이 없음을 글자로 표기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 하지도 않고 보여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때로는 외국인 중심의 표기법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덜 정확한 발음을 하게도 한다. 예를 들어, 한글 'ㅂ, ㄷ, ㄱ'을 'p, t, k'로, 또 한글 'ㅍ, ㅌ, ㅋ'을 'p', 't', 'k'로 표기함으로써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글 'ㅂ, ㄷ, ㄱ'와 'ㅍ, ㅌ, ㅋ'를 모두 'p, t, k'로 발음하게 된다. 이러한 표기는 정확하지 못한 발음의 문제뿐 아니라 음소적 변별력을 잃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인 그중에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로마자 표기법을 만든 것은 한자혼용과 함께 우리의 문자 정책에서 주체성이 없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로마자 표기에서 주체성을 잘 살린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19세기 이래 널리 쓰여 와 나라 안팎에 깊이 뿌리 박힌 웨이드식 로마자 표기법을 당분간 혼용한 뒤에[7] 이를 버리고 1970년대말부터 모든 공용 문서와 땅이름,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새로 발표된 표기법을 적용하였다.[4]

중국의 'b'는 무성음이어서 로마자로 'p'로 표기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한어병음자모에서 'b'로 표기하였다. 이는 로마자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중국인의 언어의식을 외국인의 언어의식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때문이었다. 한어병음자모라고 불리는 개정된 표기법의 특징은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i. 중국인의 언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ii. 로마자이외의 부호는 쓰지 않으나, 홀소리에는 오무린 입을 나타내는 " 와 두 홀소리--혀앞소리 e'와 혀가운데소리 e--를 구별하기 위한 샷갓(^)을 사용한다.
- iii. 글자의 일반적인 소리값과 중국말 음소의 소리값이 가까운 것을 먼저 맺어준 뒤에 나머지를 활용한다.
- iv. 변이음은 무시한다. 어떤 음소에 대해 적당한 대응 부호가 없을 때에는 입으로 로마자 부호를 대응시킨다.
- v. 로마자를 두개이상 겹치지 않게 한다. 그 결과로 웨이드식에서 ch'ih 가 병음자모에서는 ch로 바뀌는 등 부호의 수가 줄어들었다.

표8은 한어병음자모와 웨이드(Wade-Giles)식 및 개정된 로마자 표기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2: 중국말 토마자삼기의 두가지

병음자모	웨이드	병음자모	웨이드
b	p	a	a
p	p'	o	o
m	m	e	e
f	f	ê	e
d	t	i	i
t	t'	u	wu
n	n	ü	yü
l	l	ai	ai
g	k	ei	ei
k	k'	ao	ao
h	h	ou	ou
j	ch	an	an
q	ch'	en	en
x	hs	ang	ang
zh	chih	eng	eng
ch	ch'ih	er	er
sh	shih		
r	jih		
z	tzu		
c	tzu'		
s	ssu'		

2.4. 글자에 본래 소리값이 있다는 주장

한자는 글자마다 고유의 뜻을 담고 있어서 한글로 옮겨 쓸 때 뜻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같은 논리로 특정 토마자에 고유의 소리값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언어학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b/에는 유성의 자질이 있고 /p/에는 무성의 자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b/는 /p/로 표기되어야 하고 우리말의 /p/는 /ph/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마자를 자기말의 문자로 쓰고 있는 몇 나라말을 살펴 보면, 이 주장이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3: 토마자끼리의 대응

영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w		v	v
v	v	f	b
h		h	j

우리가 토마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잊지 않아야 할 일은 있는 부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토마자가 어떤 음성학적 소리값을 나타내느냐는 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음성부호든 영어든간에 특정 부호 체계가 우리말 토마자삼기의 절대적 원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2.5. 낱말머리 당소리가 기저음소라는 주장

'b, c, ɣ'를 'b, d, g'로 쓸 수 없고 'p, t, k'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음소(phoneme) 'b, c, ɣ'의 대표 소리값이 낱말 앞에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무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말 음소의 기본꼴은 낱말의 처음에서 실현된다고 보기 보다는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말의 낱말머리가 종립환경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음소가 낱말의 앞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증거의 첫째는 아래 (7)에 있는 두음법칙이다.

- (7) ㄱ. 낱말머리에 'ㄹ'이 음수 없음: 보통, 탁원
 ㄴ. 음절머리 'ㄹ'앞에는 'ㄴ'이 음수 없음: 너자

이렇게 본래의 소리값을 잃은 당소리들은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 끼이면서 자기의 본래 소리값을 되찾는다. 홀소리사이에서 음소가 본래 소리값을 찾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끝 당소리의 경우이다. 우리말의 당소리는 음절끝에서 소리값을 잃거나 어울어진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끝당소리(종성)로 8개의 음소를 들었다. 열아홉개의 당소리들이 음절끝에서 중화되어 일곱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소리값을 잃은 당소리들은 뒤에 홀소리가 따라 음으로 즉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 끼이면서 본래 소리값을 되찾는다.

- (8) 음소 음절끝의 중화 홀소리사이의 제소리
 값 값 값치
 값 값다 가파
 값 값 가비

대부분의 음운론 학자들은 우리말의 기저음운에 /p, t, k/가 있고 이들 음운이 홀소리 사이에서 유성화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p, t, k/를 기저음소라고 가정하여도 이들이 홀소리 사이에서 무기음이면서 동시에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규칙은 음운 규칙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차라리 음성 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 d, g/를 기저음소로 보고 /p, t, k/를 음운규칙에 의한 변이음으로 본다면, /b, d, g/가 음절머리에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음운론적으로 음절머리라는 무성 상황때문에 무성으로 동화되어 발음된다고 본다.

- (9) ㄱ. {b, d, g} → [-voiced] / \$ _ V
 ㄴ. {b, d, g} → [-voiced, -release] / V _ \$

모든 기저음소가 닿소리사이에서 나타 난다는 가정은 [r/ll]의 기저음소에 대한 해답을 줄수도 있다. 우리의 원칙에 따르면 ll이라는 기저음운이 홀소리 앞에서 [r]로 바뀌었다고 보기 보다는 기저음소 /r/이 음절끝에서 [l]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r/을 기저음소로 [l]을 변이음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의 관행에 크게 벗어나기는 하나, 이런 이유로 /r/의 로마자 표기를 r로 함이 타당하다.

2.6. 음성 구분의 기준이 유성이러는 생각

영어 알파벳에 익어온 이들은 영어의 음소 구분에 자주 쓰이는 음성 자질(feature)인 유성(voice)을 만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유적인 기준은 차라리 강세(tense)에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10]. 그리고 이 강세의 수단으로 기음(aspiration)이 자주 쓰인다. 우리말, 향가리말, 중국말은 유무성의 차이가 음소 기준의 차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영어의 음소 p, t, k는 강세의 방법으로 기음을 가지게 되었고 강세가 없는 b, d, g는 유성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라틴 계열 언어의 음소 p, t, k는 우리말의 "ㅍ, ㅌ, ㅋ"에서 처럼 또다른 강세의 방법으로 목의 긴장(glottal tense)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로마자 'b'와 'p'의 대립으로 우리말에서 기음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음성학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여러 발췌를 양보해서 유성(voice)의 구별이 더 만유적이라고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음운 표기에 있어서는 우리말을 모국어로 쓰는 이들의 의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은 칼그렌의 음운표기 기준이기도 하다[9]. 칼그렌에 따르면 음운론적으로는 상보적 본포 관계에 있는 두 음성조차도 모국어 사용자들이 두개의 음운으로 의식한다면 이를 두개의 음운으로 표기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사람이 하나로 의식하는 /b/을 두개의 부호 /p, b/로 나타내서는 안된다.

3. 표기법을 정하는 기준과 우선 순위

이제까지 표기법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덧붙여 맞춤법(orthography)의 일반적 원칙을 살펴본 뒤에 표기법을 정하는 원칙을 만든다. 웰리쉬는 글자만들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11]

- i. 언어학적으로 해당 언어를 일관성있게, 경제적으로, 애매함이 없이 나타내야 한다.
- ii. 글자를 손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 iii. 읽고 쓰기가 편해야 한다.
- iv. 기계사용에 편리해야 한다.

"이상적인 표기법은 한음소-한글자이어야 한다."라는 아메리카 서지 학회의 보고서가 제안한 글자개혁의 원칙은 우리가 로마자 삼기 기준을 세우는 일에 참고가 될 것이다.[8]

3.1. 표기법을 정하는 기준

첫째로,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 의식을 먼저 고려한다.

둘째로, 주어진 로마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로마자에 쓰지 않고 남은 글자 있는 한 로마자 이외의 다른 부호는 쓰지 않는다. 새로운 부호를 쓰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계의 글자판에 이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교부(84년)안은 로마자가운데 15자만을 사용할뿐 나머지 11개의 로마자를 놀리면서 로마자에 없는 부호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 (10)-(12)에서 여러 로마자 표기법에서의 로마자 활용 정도를 비교하여 본다.

(10) 문교부(55년)안이 사용한 로마자: 18
aeiou b d g h k m n p r s t w y
사용하지 않은 글자: 소문자 8, (대문자 모두)
c f j l q v x z

(11) 문교부(84년)안이 사용한 글자: 15
aeiou h k m n p r s t w y
사용하지 않은 글자: 소문자 7, 대문자 모두
c f j q v x z (가지음소 4개: b d g l)
로마자에 없는 기호 2: ' ^

(12) ㄱ. 웨이드식에서 사용한 로마자: 19
aeiou c f h j k l m n p r s t w y z
사용하지 않은 로마자: 7개 b d g q r v x

ㄴ. 한어 병음 자모에서 사용한 로마자: 23
aeiou b c d f g h j k l m n p q r s t x z w y
사용하지 않은 로마자: 소문자 1 v, 대문자 모두

셋째로, 어떤 문자에 주어진 일반적인 소리값과 우리말 음소의 소리값이 가까운 것을 먼저 맺어준 뒤에 나머지 글자를 활용한다.

넷째로, 음소와 글자와의 관계가 일대일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정보처리에서 환원성을 보장하여 로마자와 한글의 오감이 자유롭다. 현재 문교부안(84)은 환원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3.2.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표기법의 기준

기본적인 표기법원칙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경우 다음의 우선 순위를 따른다.

- i. 음소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하여야 한다.
- ii. 음운론적인 기저음소 또는 형태소가 표기의 기준이 되며, 한글 맞춤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 iii. 우리말 음소의 소리값에 가장 가까운 로마자를 먼저 뺏어 주고 나머지 글자를 활용한다.
- iv. 로마자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4. 로마자 삼기 절차

위의 원칙에 따른 결과로 문교부 3안(1984)과 크게 다른점을 셋으로 줄여 말할 수 있다. 첫째로 'ㅂ, ㄷ, ㄱ'와 같은 무기음은 'b, d, g'로 표기된다. 둘째로 한음소-한로마자대응이다. 셋째로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4.1. 닿소리의 로마자 표기 (22개)

4.1.1 첫 단계: 대응이 쉬운 로마자 삼기

위에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여 몇가지 기본적인 음소의 로마자 표기 먼저 정한다. 외국인의 의식보다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 의식을 우선 생각한다는 원칙은 로마자 'p, t, k'를 'ㅍ, ㅌ, ㅋ'로 뺏어 주게 한다. 이는 로마자를 아는 우리 나라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p'를 'ㅍ'로 읽기 때문이다. 로마자 'm, n, ng, h'도 문제없이 'ㅁ, ㄴ, ㅇ, ㅎ'와 이어지게 된다. 다만 한 음소에 한글자를 뺏어주기 위하여 'ng'는 대문자 'N'을 쓴다. 로마자 's'를 'ㅅ'과 잇는 것 역시 반론이 없을 것이다. 로마자 'w'를 반모음 'ㅜ'와 연결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우리의 의식을 중요하게 본다는 원칙의 결과로 9개의 음소에 아래 (13)과 같이 로마자가 주어진다.

(13) 터짐 -V	ㅍ (p)	ㅌ (t)	ㅋ (k)
비뺏 -V		ㄴ (s)	ㅎ (h)
콧소리+V	ㅁ (m)	ㄴ (n)	ㅇ (N)
반홀소리	ㅜ (w)		

4.1.2 두째 단계: 첫단계다음 대응이 쉬운 로마자삼기

'ㅍ, ㅌ, ㅋ'보다 어린 소리는 'b, d, g'이므로 로마자에서 어린 터짐소리를 나타내는 'b, d, g'를 사용한다. 'ㅁ, ㄴ, ㅇ'는 'bb, dd, gg'나 'pp, tt, kk'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미 있는 로마자를 쓰기 위해 'B, D, G'로 표기한다. 이 주장은 강주상[1]의 주장을 확장한 것으로 같은 원리에 의하여 'x' 계열의 소리와 's'

계열의 소리의 글자를 정한다.

우리말의 원소리를 로마자의 대문자로 바꾸는 것은 순서정리(sorting)와 같은 정보처리에서 매우 유리하다. 한글 원소리에 로마자를 겹쳐 쓰는 경우 각 글자에 대해 ASCII코드와 같은 고유 번호와 묶어 줄 때 문제가 생긴다.

늦터짐소리 'x, ㅈ, ㅊ'에는 해당하는 로마자가 없어 여러가지 글자가 쓰이고 있다. 로마자가운데서 다른 글자와 아직 뺏어지지 않은 글자를 고른다. 'x'의 표기에 쓰일 수 있는 것은 'zz, 'jj', 'tch', 'ch' 및 'j' 다섯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부호가 하나인 것은 'j'밖에 없어 'j'를 'x'에 대응시킨다. 'ㅈ'는 'B, D, G'와 관련하여 'j'를 쓴다. 'ㅊ'는 라틴말의 'ci'를 참고하여 'c'와 뺏어준다.

4.1.3. 세째 단계: 임의로 대응시켜야하는 로마자

반홀소리 'l'에는 두가지 글자가 쓰일 수 있다. 국제 음성 부호로 'j'가 쓰이고, 일반적으로는 'y'가 쓰이기 때문이다. 'j'는 이미 닿소리 표기에 쓰였으므로 'y'를 반홀소리 부호로 쓴다. 반홀소리 'r'에 대응하는 로마자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w'를 반홀소리 'r'에 대응시킨다. 나중에 홀소리 'r'에 대응하는 로마자를 'r'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남은 글자는 'e'이다. 이 음성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가지 소리로 나타남으로 그 기저음소를 찾아 로마자로 옮겨야 한다. 우리말의 닿소리는 홀소리 사이에서 기저음소가 나타남으로 'e'의 대표음성은 아래 (14)의 세번째 예에서처럼 'r'로 표기한다.

(14) 음절 머리:	류성 -> yusong
음절 끝:	이발 -> ibal
홀소리 사이:	바람 -> baram

마무리된 닿소리 표기표는 다음과 같다. 22개의 음소에 쓰인 로마자 숫자는 소문자 15개 대문자 7개이고 덧부호는 하나도 없다.

표4: 우리말 닿소리의 로마자 삼기

	입술	잇몸	앞천정	뒷천정	목
터짐 -asp +asp +tns	ㅂ(b) ㅍ(p) ㅃ(B)	ㄷ(d) ㅌ(t) ㄸ(D)	ㅈ(j) ㅊ(c) ㅉ(J)	ㄱ(g) ㅋ(k) ㆁ(G)	
비빔 -asp +tns		ㅅ(s) ㅆ(S)			ㅎ(h)
코	ㅁ(m)	ㄴ(n)	ㄹ(r)	ㅇ(N)	
반홀소리	ㅍ(w)		ㅣ(y)	ㅡ(W)	

4.2 홀소리의 로마자 표기 (8개)

우리말에는 혀앞 홀소리 'ㅇ'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으나[6] 이 글에서는 형태소적 표기법을 택하기 때문에 아래 (14)의 8개 음소를 기초로 삼는다.

(14)

ㅣ	ㅡ	ㅍ
ㅣ	ㅣ	ㅍ
ㅣ		ㅍ

4.2.1 대응이 쉬운 로마자 삼기

다음의 글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충돌의 없으므로 그대로 쓰기로 한다.

(15)

ㅣ(i)	ㅡ	ㅍ(u)
ㅣ(e)	ㅣ	ㅍ(o)
ㅣ		ㅍ(a)

4.2.2 혀앞소리 'ㅣ'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따르면 혀밀을 나타내는 'ㅣ'에 혀앞을 나타내는 'ㅣ'가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ㅣ'이다. 따라서 'ㅣ'는 'ai'나 'ay'로 바꿀 수도 있고, 소리값이 가까운 국제음성부호 'ae'와 맺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한음소-한글자의 원칙에 벗어 나므로 'A'를 쓸 것을 제안하고 싶다. 너무 과격한 주장이어서 대중성이 떨어질 것이나 정보처리의 면에서 그 값이 곧 인정될 것이다. 완성된 혀앞소리를 포함한 홀소리 표는 다음 (16)와 같다.

(16)

ㅣ(i)	ㅡ	ㅍ(u)
ㅣ(e)	ㅣ	ㅍ(o)
ㅣ(A)		ㅍ(a)

4.2.3 혀 가운데 소리

아직도 남아 있는 두 음소 'ㅣ'와 'ㅣ'에 해당하는 로마자가 없을 뿐 아니라, 홀소리를 위한 글자가 모두 다른 음소를 위해 쓰였기 때문에 원칙을 따를 수가 없거나 아주 어렵게 되었다. 이 어려움을 반영하는 듯이 'ㅣ'에 대해서는 12개의 표기방법이, 'ㅣ'에 대해서는 6개의 표기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 두 음소의 로마자를 위해서 첫째 기준인 입대일 대응을 따르면서 우리의 내재 기준인 로마자만을 활용하되, 임의의 글자를 택한다.

'ㅣ'에게는 소리값이 가까운 'ㅣ'의 대문자인 'U'를 맺어주고 'ㅣ'에게는 소리값이 가까운 'ㅇ'의 대문자인 'O'를 맺어 준다. 이 두 홀소리에겐 어떤 로마자를 맺어 주거나 덧붙호를 쓸지라도 예비 교육 없이 단순부호로 정확하게 본디 소리값을 발음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처리에 편리한 독립된 한글자를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홀소리 로마자 표기:

	혀앞	혀가운데	혀뒤
입위	ㅣ(i)	ㅡ(U)	ㅍ(u)
입가운데	ㅣ(e)	ㅣ(O)	ㅍ(o)
입아래	ㅣ(A)		ㅍ(a)

5. 맺음

이 글은 어떤 식의 로마자 삼기도 우리 말의 소리를 정확하게 로마자로 옮길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으면서 외국인에게도 결코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계처리에 편리한 한글의 로마자 삼기가 가능하다.

한글의 로마자 삼기와 관련하여 꼭 다뤄야 할 문제는 이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이다. 현재 남북한이 로마자 표기 표준화하기 위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다음해 5월까지로 합의 시한을 정한 것은 이 글에서 말한 모든 문제점들을 안고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남북이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도 어렵고 하니, 현재처럼 몇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한두번 모여 양쪽안을 우물쭈물 절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심있는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더없이 바람직한 주제라고 여겨, 새해 한글날에는 남쪽의 정보과학회/인지과학회

와 북쪽의 관련학회가 공동 주최하여 한글 로마자 삼기틀 위한 연구모임을 갖을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강주상(1989) '한글문자의 로마문자 표기에 대한 제안: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2. 김 민수 (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3. 김 수곤 (1976). Palatization in Korean. 텍사스대 박사학위 논문.
4. 신 경구 (1979). 'Language Planning and Spelling Reform.' 어학 연구 10집. 전남대 어학연구소.
5. 신 경구(1989). '한글의 로마자 삼기.' 어학연구 25:3. 서울대 어학 연구소.
6. 유 만근 (1985). '표준 한국어 정밀 표음 로마자 맞춤법 연구.' 언어 10:1.
7. 이 상억 (1982). '한국어 로마자 표기 '82.' 언어 7:1.
8. Dewey, Godfrey (1971). English Spelling: Roadblock to Reading. Columbia University.
9. Kalgren, Bernhard (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Chinese. (우리말) 이 돈주 역주 (1985). 중국 음성학. 일지사.
10. Kim Chin-Wu (1970). A thoery of aspiration. *Phonetica* 231. 339-59.
11. Wellish, Hans H. (1978). *The Conversion of Scripts--Its Nature, History and Utilization*.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Y.